

엄지성, A매치 성공 데뷔... 이젠 광주FC 승격위해 똬다

팀 복귀 별교 동계훈련 참가 "공격포인트 10개 올리겠다"

성공적인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엄지성이 광주 FC 승격을 위해 스파이크 끈을 다시 조여 맨다. '벤투호'에서 아이슬란드 평가전을 소화한 엄지성이 지난 24일 팀에 복귀해 2022시즌 준비에 나섰다. 엄지성에게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2002년생 엄지성은 프로 2년 차에 벤투 감독의 호출을 받으면서 국가대표의 꿈을 이뤘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을 통해 A매치 데뷔전에 나섰다. 투입 11분 만에 데뷔골까지 장식하면서 '엄지성'이라는 이름을 알렸다.

물도바와의 평가전에서는 그라운드에서 오르지 못하고, 해외파 합류에 따라 최종 목표였던 월드컵 예선까지 동행하지는 못했지만 국가대표로서의 의미 있는 첫 걸음이었다.

엄지성은 "훌륭한 형들이랑 같은 소속으로 훈련하고 경기도 하면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 목표도 어느 정도 달성했고 재미있게 하다 온 것 같다"며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고, 좋은 기회를 받아서 골까지 넣었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지만 좋은 훈련을 한 것 같다"고 첫 대표팀 참가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금호고를 졸업하자마자 프로에 뛰어난 엄지성은 "막내"답지 않게 공격적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팀 공격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 대표팀에서도 '판형' 이용(전북)과 무려 16살 차이가 난 '막내'였지만 큰 무대에서도 엄지성은 여유로웠다.

엄지성은 "연습 경기이고 관중이 없어서 크게 긴장을 안 했다. 누구나 받을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똬 것 같다"고 언급했다.

기회가 왔을 때 엄지성은 친척했다. 4-1로 앞서 후반 41분 왼쪽에서 이영재(김천상무)가 크로스를 띄웠고, 문전에 있던 엄지성이 경중 뛰어올라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다.

큰 키는 아니지만 뛰어난 점프력을 보유한 엄지성의 강점이 빛난 순간이었다.



광주FC의 엄지성이 지난 24일 별교스포츠허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엄지성은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형들이 잘 받쳐주고 좋은 크로스를 올려줘서 A매치 큰 무대에서 골을 넣을 수 있었다"며 "크로스가 그렇게 좋게 올라올지 몰랐다. 좋은 크로스가 와서 제 장점을 잘 활용해서 골을 넣을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대표팀에서의 경험 하나하나를 엄지성에게 큰 공부가 됐고, 동기부여로 남았다.

엄지성은 "훈련 분위기나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를 처음 경험해봐서 재미있었다. 코칭스태프도 워낙 많고, 외국인 감독, 코치님이 계시어서 새로웠다. (투입 전에) 벤투 감독님이 운동장에서 개인 전술, 팀이 원하는 포인트 등을 알려주셨다. 수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코너킥이나 프리킥 위치 등을 알려주셨다"며 "(팀에서) 좋은

모습 보이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시즌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동계훈련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엄지성은 이제 '승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달리게 됐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의 37경기 그리고 국가대표에서의 경험을 살려 '공격수'로 매서움을 더하겠다는 각오다.

엄지성은 "아무래도 공격수니까 공격포인트를 목표로 잡았다. 작년에는 포인트를 많이 올리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팀에 보탬이 되기 위해 공격포인트 10개 정도를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며 "공을 잡았을 때 팬들이, 선수들이 기대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결전의 날... 축구 대표팀 레바논 입성 축구국가대표팀 황의조(왼쪽)와 이용이 26일 레바논 베이루트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축구대표팀은 27일(한국시간) 9시 레바논 시돈의 사이다 무니시팔 경기장에서 레바논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조별리그 A조 7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승리의 휴식' 페퍼스, 3승 도전 나선다

31일 5R 현대건설과 대결 선수들 홈 첫승 뒤 자신감 넘쳐 김형실 감독 "팬들을 위해 최선을"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 배구단 AI페퍼스가 5라운드에서 새 도전을 시작한다.

AI페퍼스가 오는 31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5라운드 첫 경기로 현대건설을 상대한다.

현대건설은 V리그 최초로 단일시즌 2회 10연승의 진기록을 작성한 데 이어 역대 여자부 최다승과 최다 승점 기록도 눈앞에 두고 있는 강팀이다.

하지만 AI페퍼스는 최근 급상승한 분위기를 무기로 갖췄다.

지난 18일 IBK기업은행전에서 '홈 첫승'을 기록한 뒤 끝없는 4박 휴가까지 보낸 선수들은 자신감과 컨디션을 완전 회복했다. 김형실 AI페퍼스 감독은 지난 23일 휴가를 마치고 첫 훈련에 도입한 선수들이 "떨떨 날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수들이 수비 연습만 하는데도 신나 한다. 이제야 이기는 맛을 안 모양이다"고 말했다.

AI페퍼스에게 지난 1-4라운드는 '내리막길'이었다. 1라운드 때 차례로 첫 세트, 첫 승점, 첫 승을 올렸던 기쁨도 잠시, 2-4라운드에서는 '17연패' 늪에 빠졌다. 자칫 단일 시즌 최다 연패 기록인 2012-2013시즌 KGC인삼공사의 20연패를 넘어설 위기였다.

연패 무기력함에 빠져 있던 AI페퍼스에게 최근 기업은행전 승리는 가뭄의 단비였다.

김 감독은 "2승을 올려서 우리 선수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게 크다"며 "자신감이 있으면 지는 경기라도 접전을 해 보고, 끈끈하게 달라붙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배구 하는 재미가 생기고 몸도 가벼워진다"고 설명했다.

줄어든 범실도 고무적이다. 한 세트당 평균 5.59회, 경기당 19.33회로 7개 구단을 통틀어 가장 많은 범실을 기록하고 있는 AI페퍼스. 하지만



AI페퍼스 선수들이 지난 18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전에서 득점 후 환호하고 있다. <KOVO 제공>

최근 3경기에서는 GS칼텍스전 13회, 현대건설전 14회, 기업은행전 13회로 눈에 띄게 범실이 줄었다.

김 감독은 "승수는 2승 뿐이지만, 자세히 보면 내용이 좋았음에도 범실 때문에 아쉽게 놓친 경기들이 많았다. 그런 경기들 안 놓치고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변수는 부상병이다. 타 구단보다 선수 풀이 훨씬 적은 AI페퍼스에게 부상은 치명적이다. 야속하게도 시즌 초부터 박사량의 발목 부상을 비롯해 지민경, 이한비, 구술, 최가은 등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전력을 이탈했다.

가장 큰 걱정은 공격수비를 도맡아 해 온 이한비와 박경현에게 피로가 상당히 누적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장 이한비는 책임감 때문에 감독의 휴식 제안도 마다하고 쉬지 않고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방 있는 라이트 공격수로 급부상한 박은서도 최근 고교 시절 겪은 왼쪽 무릎 인대 부상이 재발했다. 인대 부근에 뺏조각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김 감독은 박은서의 의견에 따라 뺏조각 제거 수술을 시즌이 끝난 뒤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다행히 엘리자벳은 어깨-팔꿈치 통증을 이겨내고 기업은행전 23득점을 폭발한 데 이어 지난 23일 울스타전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보였다. 다만 연습 중에는 공격 비율을 다소 줄이는 등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다.

김 감독은 "31일 현대건설전은 흐름상 서로 체력을 아끼는 경기가 될 것 같다. 순위가 어느 정도 결정된 상황이라 현대건설이 후보 선수들을 많이 넣어서 플레이할 지도 모르겠다"며 "우리에게는 도전의 시간이다. 첫 라운드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도전할 생각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광주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 게임에 전력을 다 하자는 심정으로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I페퍼스는 현재 2승 22패로 승점 8점, 팀 순위 7위에 머물러 있다. 6위 기업은행을 승점 6점 차이로 뒤쫓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PS 참가팀 확대·연장전 승부치기 도입 추진

출범 40주년 KBO, 변화 시도

출범 40주년을 맞는 KBO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포스트시즌 참가 팀 확대·경기 운영 방식 변화, 연장전 승부치기 도입 등이 추진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를 맞은 프로야구가 지난 25일 2022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팬 서비스 확대 사업 추진 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THE NEW KBO" 구현을 핵심 목표로 내세운 KBO는 팬들의 요구에 맞춰 포스트시즌 참가 팀 확대를 검토하고, 경기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줄 계획이다. KBO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올 시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연장전 승부치기 도입도 논의된다. 논란이 많은 '2연전' 리그 운영 방식도 손질한다.

포스트라이프론 확대에 맞춰 심판들의 적응 훈련이 진행되는 등 새로운 스트라이크존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트레이닝 시스템 통합도 의결됐다.

각 구단의 트레이닝 시스템 통합으로 팬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응원할 투수, 투구 궤적, 타구 속도 등을 중계 화면을 통해 제공 받을 전망이다.

KBO는 이를 통해 팬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관련 콘텐츠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변 확대를 위해 유소년 유망주 육성 사업도 지속해 펼친다.

1월 제주도에서 리틀야구 대표 상비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KBO 넥스트 레벨 트레이닝 캠프가 2월 고교진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이어진다.

과학적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과 측정 결과를 연구해 메뉴얼로 제작, 각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쿄올림픽 부진 만회를 위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KBO는 공정한 선수 선발과 고도화된 전력분석 지원 등을 통해 한국야구의 위상을 살리겠다는 각오다.

KBO는 "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팬 서비스와 새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사업도 준비 중"이라며 "KBO와 각 구단은 이번 이사회를 통해 리그가 직면한 여러 위기 상황에 대해 공감했다. 앞으로 40년 그 이상 KBO 리그만의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제도 베이스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깊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항저우 아시안게임 골프, 프로 선수들 출전한다

올해 9월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골프 경기에 프로 선수들이 출전한다.

대한골프협회는 2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국가대표를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를 혼합해 선발한다고 밝혔다.

4명이 출전하는 남자부는 프로 2명과 아마추어 2명, 3명이 나가는 여자부는 프로 1명, 아마추어 2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세부 선발 방법은 추후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코칭스태프 선임 역시 추후 논의 예정이다.

그동안 올림픽 골프에는 프로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었지만 아시안게임 골프는 아마추어 선수들만 나갈 수 있었다.

특히 남자부에 프로 선수들의 출전이 허용되면서 임성재, 김시우 등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는 선수들의 병역 혜택 가능성도 생겼다.

한편 대한골프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성문정 상근 전무이사를 선임했다.

성문정 전무이사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 연구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위원, 스포츠공정 TF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중명 대한골프협회장은 "올해 아시안경기대회에 전 부문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한국 골프발전을 위해 협회비를 출연해주고 있는 회원사 골프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